

나노 재료 · 소자 학술회의 10월 22-25일 개최

IEEE(국제전자전기공학회)가 주최하는 <국제 나노재료 · 소자 국제 학술회의>가 10월 22-25일 4일간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다.

국제학술회의는 나노기술 가운데에서도 차세대 산업적으로 가장 성장가능성이 높은 재료와 소자분야를 폭 넓게 다루는 국제학술회의로 세계적인 나노기술 전문가들을 초빙해 선진국의 나노 재료 · 소자 개발동향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, 전문가들의 협력방향을 도출한다.

LG전자 이희국 사장, 삼성전자 서광벽 부사장, 일본 토요대학 스가노 교수가 기조강연을 하고, 미국 IEEE-NTC 메야 메야판 회장, 스탠포드대학 니시 교수를 비롯해 미국, 일본, 중국, 프랑스, 독일, 이태리, 오스트레일리아 등 50여명이며 참여하며, 세계적인 나노 과학자만도 400여명이 참석한다.

국제학술회의 주제는 나노기술의 출현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△나노전자소재 및 제작기술 △나노 반도체 △나노-상보성 금속산화막 반도체 △신소자 및 나노광학 △분자전자공학 및 바이오소자 △스핀전자공학 · 시트로닉스 등 총 6개분야에 걸쳐 총 50편의 초청 논문과 250여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된다.

또 포항나노기술집적센터에서는 10월23일 Stanford대학 나노센터와 MOU, 10월24일 일본 Ellionix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산업화를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.

2006년 8월17일에는 전자 · 분석기기 생산기업인 일본의 JEOL, 프랑스의 Cameca와 국제 원자 · 전자 현미경 분석센터 공동설립을 위한 투자(MOU)를 이끌어 낸 바가 있다.

한편,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수도권 자치단체의 대수도론,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인의 어려움을 설명할 예정이며, 포항공대, 방사광가속기, 나노기술집적센터, 포항산업과학연구원, 포항지능로봇연구소, 경주의 양성자가속기 등 지역의 우수한 과학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IT, BT, NT, ET 등 첨단산업과 경북도에서 역점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에 많은 투자를 요청할 계획이다. <김지은 기자>

<화학저널 2006/10/20>